

# 폭염 뚫고 '비지땀 행정'

### 심 민 임실군수, 9월 개통 앞둔 옥정호 출렁다리 등 민선 8기 이끝 핵심사업 점검

심 민 임실군수가 폭염 속에서도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업과 민생현장을 챙기는 비지땀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심 군수는 8일부터 11일까지 민선 6기와 7기에 걸쳐 추진해 온 현안 사업들을 민선 8기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군민과의 약속인 '섬진강 르네상스'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현장 행정 길에 올랐다.

이번 현장 행정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심 군수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첫날인 지난 8일에는 옥정호 권역 현안 사업들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운암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운암 특화단지 조성(100.6억원)과 운암면 주민들 생계 대책을 위한 △생업지구 앞뜰 개발(100억원)을 점검했다.

이어 9월 개통을 앞둔 옥정호 출렁

다리 마지막 공사 현장과 함께 봉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 등이 추진되는 △제2기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250억원)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30억원) △봉어섬 생태공원 경관조성(24억원) 등 봉어섬 개장 및 운영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하운읍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45억원) △에코유지업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126.2억원) △옥정호 물문화 볼레길 조성(50억원) △운중, 운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30억원)을 점검하고, 인근 카페 및 식당 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민생현장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9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 민 군수 주재로 국·실과장, 7733부대 2대대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 임실군, 2022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임실군이 9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 민 군수 주재로 국·실과장, 7733부대 2대대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2022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보고회는 비상소집 훈련, 전시직제편성 훈련 및 전쟁을 가상해 시행하는 도상연습, 실제 연습에 대한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을지연습은 국지도발 등 국가 비상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 수행하는 훈련으로 그간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미실시하거나 축소되어 실시했다.

심 민 군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위태로운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이번 을지연습은 형식적인 연습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훈련으로 진행하여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정화영 순창부군수, 생명력 있는 현장행정 강조

### 5일·9일 읍면 방문 마쳐

정화영 순창부군수가 대민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행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화영 부군수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읍면을 순회하며 현황 파악과 직원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정 부군수는 “대 군민 직접인 읍면의 현안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읍면을 방문 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바다민심과 여론을 듣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지시하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군수의 현장 중심 행정은 군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매번은 아니



정화영 순창부군수가 대민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행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만 부군수가 직접 실과를 방문하며 결재를 하는 '방문 결재'가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정 부군수는 직원들의 '현장'인 사무실에서 각 실과의 실무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대를 쌓는 한편, 더 편안한 분위기에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어 방문 결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농기센터, 축사에 바이오커튼 활용 악취 저감 노력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축산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마을과 인접하고 민원이 많은 송동면 인월면 돈사 2개소에 바이오커튼과 오존수 분무 시스템을 설치해 악취 저감이 나서고 있다.

바이오커튼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악취저감기술로 축사 내부 공기를 이중막으로 씌운 여과장치에 보내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이며, 오존환

용 환경 관리, 안개분무를 통한 먼지 물질 제거, 미생물제 처리공법 등을 동시에 적용해 돈사 냄새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황화합물 분자를 오존수가 결합해 파괴시킴으로써 암모니아가 50%감소 효과와 분진 92%가 감소로 악취의 확산을 줄인다.

바이오커튼을 설치한 송동면 김영석 농가는 “지난 6월 시설이 완공된 이후 악취저감 효과를 체감했다”며 “유용미 생물을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악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바이오커튼과 미생물 투입으로 축사주변 악취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평생학습관 하반기 수강생 모집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K-POP 댄스 △리안 공예 △수채화 △서예 △한국화 △골프 △블링 △메이킹 △우드워킹 △미술심리상담사 과정 △컴퓨터 사무자동화 △캘리그래피 △업사이클링 등 총 42개 과정 512명을 모집하고, 수강료는 32,000원이고 재료비(일부 장비)는 별도임. 수강 신청은 남원시 통합예약·신청

시스템(https://www.namwon.go.kr/tesarve)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남원시 거주 또는 직장 소재지가 남원시 관내인자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평생학습관(063-620-52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양근 교육체육과장은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이자,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 통

#### 남원시농기센터, 과수 적기 방제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과수 물발해충의 산란 시기를 맞아 성충기 적기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물발해충 피해로는 잎을 갉아 먹고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며 왁스 물질을 분비해 외관상 혐오감을 주며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수에 극심한 피해를 준다. 성충기 방제 시기는 8월부터 10월까지로, 다가오는 산란기를 맞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지 지도강화 및 과수 물발해충 성충기 방제 일련현수막을 게시했다.

특히 지난겨울 기온이 높고 봄 가뭄 등으로 발생 밀도 증가에 따라 적기의 신속한 방제가 더욱 요구되는데 방제를 소홀히 하면 내년에 밀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적기방제를 강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한의약 건강증진 갱년기교실 운영 추진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는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년의 우울증과 갱년기 증상관리를 위한 2022년도 '한의약 갱년기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의약 갱년기교실은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20회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 2회 운영된다. 25명을 모집하여 침, 뜸, 약 등 한의약 관리를 통해 몸풀기 체조, 영상시청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로 인한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증상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 신체단련과 심신안정을 위한 기공체조교실, 경로당 노인중풍·골관절사업 등 군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